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11월 6일(주일) 제1416호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11월 2~3일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현장 참가자 851명, 온라인 참가자 200명, 결신 209명

32번째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일본 미야자키에서 울려 퍼졌다. 지난 11월 2일(수)과 3일(목) 미야자키 메디키트 현민문화센터에서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집회가 열렸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일본에서 대면으로 열리는 집회였다. 참가자 851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209명이 결신했다. 일본 전국 실행위원 교회와 성도 200명도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포문은 지난 2일 교회 세미나가 열렸다. 메디키트 현민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교회세미나에는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온누리교회 목회철학과 예수바보행전’, 김하중 장로(前 주중대사) ‘세상을 이기는 그

리스도인’, 이기복 목사(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바른여성선교회) ‘결혼과 가정과 차세대’를 주제로 강의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러브소나타 전야제 ‘가스펠나이트 미야자키’ 집회가 메디키트 현민문화센터 연극홀에서 있었다. 오타 유사쿠 목사(안디옥선교회)가 설교하고, M-seed(조종고 등학생 찬양팀), One Voice(가스펠 콰이어), 나카야마 유타(일본 워십 리더)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11월 3일 오전에는 미야자키관광호텔에서 한일교류오찬회 리더십 포럼이 진행됐다. 한국과 미야자키 각 분야(경제계, 교육, 의료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리더십들 128명(한국측 49명, 일본측 79명)이 참석했다. 저녁에는 메

디키트 현민문화센터에서 대망의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집회가 막 올랐다. 김영미(소프라노), 배재철(테너), 송솔나무(플루트 연주자), 범키(태피), 크룩스(남성 가스펠 보컬), 이와부치 마코토(가스펠 가수), 모리 유리(가스펠 가수)가 게스트로 출연했고,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를 주제로 전했다. 이목사는 “하나님 선물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선물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크리스 웨도위츠 선교사(미야코노조크리스천센터)는 “작은 힘이지만 앞으로도 러브소나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련기사 4-5면> / 정현주 기자

남양주온누리교회 창립 18주년

11월 6일은 남양주온누리교회 창립 18주년이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창립 18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11월 6일 오전 9시(1부)와 11시 30분(2부) 3층 본당에서 드린다.

감사예배는 이기복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 담당) 설교, 사랑채버 특순, 축복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기복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 담당)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남양주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지역사회와 다음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엔젤트리 사연 접수 적극적인 참여 필요

2022 엔젤트리 사연이 현재까지 1,500여 건 접수됐다. 예년과 비교해서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2022 엔젤트리 사연 접수는 11월 13일(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와 목회지원실에서 받는다. 이웃의 주소와 사연, 받고 싶은 선물과 연락처 등을 기록하면 된다.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19일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로비에 게시할 예정이다.

사르밧 프로젝트 쌀 배송도 거의 완료했다. 다음 주면 모든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들이 감사의 쌀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사르밧 프로젝트에서는 감사의 쌀(20Kg) 3,277 포대를 이웃들과 나눴다. 문의: 02-3215-34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전지적 작가 시점 THE STORY’

11월 23일 오후 6시 30분
‘방송작가 위한 맞춤전도집회’

“당신 인생의 기획 의도를 알려드립니다!”

믿지 않는 방송작가들을 위한 맞춤전도 집회가 열린다. 전도사역본부 맞춤전도팀이 주최하는 방송작가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전지적 작가 시점 THE STORY’가 11월 23일(수) 오후 6시 30분 63빌딩 4층 라벤더홀에서 열린다. 주제는 ‘당신 인생의 기획 의도를 알려드립니다’이다.

방송작가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전지적 작가 시점 THE STORY’는 믿지 않는 작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작가로서의 소명을 확인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다. 집회도 디너쇼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크룩스(남성 가스펠 보컬), 송솔나무(플루트 연주자) 등이 게스트로 출연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방송작가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전지적 작가 시점 THE STORY’ 초대 대상은 방송작가협회 정회원, 현직에서 방송하는 작가들이다. 11월 13일(주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30명(15커플, 지정좌석제)을 모집한다. 회비는 신청자 7만 원, 전도대상자 무료. 문의: 카카오톡 채널 ‘전지적 작가시점 The story’ 채팅창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당 회

일시: 2022년 11/12(토), 오전 6시
장소: 양재 기뻐홀
안건: 2023년 장로피택 후보 투표
참석대상: 시무, 사역, 협동, 명예장로

맛있는 말씀 해설

“네 아내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창 17:15)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훈련을 거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에게도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남편과 대등하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축복을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 것은 성경 기록에서 손꼽을 정도로 드물다. 더욱이 여성에게 이름을 새로 주신 경우는 사라가 유일할 것이다. 그만큼 사래가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라가 다시 젊어지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이름들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99세였고, 사라도 생리가 끊어져 자식을 낳을 소망을 잃어버린 때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이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사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히 11:11)라고 기록하고 있다.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은 사라가 다시 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해서 젖을 먹이면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라가 젊어졌다는 것은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를 부인으로 삼기 위해 데려간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창 20:2). 사라가 젊어지지 않았다면 경수가 끊어진 늪은 여인을 아비멜렉이 후손을 얻기 위해 데려갈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라가 젊었을 때의 미모를 되찾은 것이다. 사라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보고 바로에게 알려 바로의 궁으로 가게 될 정도의 미모였다(창 12:14-15).

사라가 다시 젊어지고, 미모를 되찾은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엄청난 기적이다. 세상의 어떤 누구도 늙어버린 몸을 회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

라의 몸에 있는 노화된 세포들을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창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늙은 몸을 젊게 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사라에게 일어난 일은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기적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이 항상 강력하게 있다. 창조와 부활은 물론이고, 교회가 탄생할 때도 그랬다. 사라가 다시 젊어져 이삭을 낳는 특별한 역사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를 모든 민족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지은 것이지만, ‘사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 아담의 범죄 이후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위치가 되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사를 세우실 때는 범죄 이전처럼 동등하게 대

우해주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시작하는 한 가정의 역사는 바벨탑 반역 사건 이후 소망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사라는 뛰어난 미모의 여성이었지만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했다. 바로에게 끌려간 사건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없다. 아비멜렉 왕에게 끌려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

하심을 믿었던 사라처럼, 우리도 조용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요셉과 가족의 재회,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11월 7일~11월 13일
창세기 44:1~46:34



겠다고 희생을 자처한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적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자.

▶요셉은 애굽(이집트) 총리가 된 자신을 못알아보는 형들을 시험한다.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 막넛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 은잔을 넣게 한다. 집으로 가던 이들을 청지기가 쫓아가 책망하고,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 위기에 처한다. 형들은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간다. 유다는 크게 상심할 아버지를 염려해 자신이 베냐민 대신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나선다.

묵상포인트 2: 애굽 총리가 요셉임을 알게

묵상포인트 1: 요셉은 형들이 과거 모습과 달리 형제애를 보이는지 시험한다. 약 20년 전 요셉을 시기해 죽이려 하고 팔아넘긴 형들이 이제는 어려움에 처한 이복동생 베냐민과 함께한다. 유다는 그 대신 종이 되

된 형들은 보복당할까 염려했겠지만, 이미 형들을 용서한 요셉은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한다. 요셉은 7년 기근의 때에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음을 알았다. 인간의 계략과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하신 뜻과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자.

▶요셉은 형들의 변화와 유다의 자기희생적 발언에 감정이 북받쳐 울고, 자신이 누군지 밝힌다. 그리고 근심하지도 한탄하지도 말라며 형들을 안심시킨다.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그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 총리로 삼으셨다고 말한다. 자신을 종으로 팔아 버린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로 해석한 것이다. 요셉은 남은 흥년을 대비해 아버지를 모셔 오라 하며 형제들과 서로 끌어안고 운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 가족에게 애굽 왕 바로를 통해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 아들들의 명단은 훗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근간이 되기에 중요하다.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묵상하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 것을 알게 된 바로는 그의 온 가족을 애굽에 데려오도록 지원한

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수레와 양식을 주고 웃도 준다. 과거에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웃이 이제 화해의 용도로 사용된다. 가나안에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 있으며 애굽 총리가 되었다고 전한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던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그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신다.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다(15:13~14). 애굽에 머물게 된 야곱 가족은 도합 70명이다. 때가 되면 이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 할 것이다. 한편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20여 년 만에 만난 야곱은 기뻐하고 감격한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진실한 우애와 사랑은 고난당하는 지체를 방관하지 않는다. 역울한 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상처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내 삶에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된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 있게 행할 것을 기록하고 실천에 옮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어머니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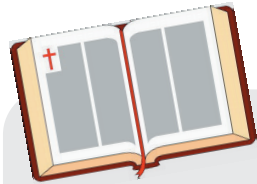
어머니의 건강과 어머니의 보호자인 저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서 기도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보살펴주시기를 기도해주시시오.

지난 7월 17일, 어머니가 시장에 가려고 버스를 타셨습니다. 내릴 때가 되어 일어섰는데 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억을 잠시 잃고,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얼굴에 큰 타박상을 입었고, 오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고비를 넘기고 퇴원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주신 중보기도자분들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퇴원 이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보호자인 저는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간호하기에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정신과 약물 부작용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정신과 말로도 다른 과의 진료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 요양사님의 파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4세 어머니가 기력을 되찾고, 운동에 지지 않고, 거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어머니를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주시시오.

/ 강물결 자매(여호수아청년부)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언제나 한 극단으로 치우칠 때 올바른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극단적 신앙에서 오히려 오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전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정된 자는 그리스도께로 올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정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선교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선교하지 않았습니

다. 반대로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믿게 하려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보다 자신의 노력을 믿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사상이 가장 중요한 진리로 여겨집니다. 찰스 스펔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만일 택한 사람들의 등에 줄을 그려 표시해 놓았다면 나는 종일 사람들의 셔츠를 들추며 런던 거리를 다닐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기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을 그분께 맡겨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생애를 바친 사역자입니다. 동시에 그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마음도 버리지 않았습니

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소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큰 근심과 고통을 느낀 이유는 혈연관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서 동족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 율법,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가장 중

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태어났습니

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불신앙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되었는가?”입니다. 그 대답은 “아니

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6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불신앙의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을 택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파기된 것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은 “아니

다”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내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폭넓고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동족’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을 가리키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구원 받은 모든 백성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동족 유대인을 가리키고, 때로는 이방인을 포함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보충 설명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두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입니다(9:7-9).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두 아브라함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으로 칭한 것은 이삭뿐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여종의 신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분명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책임 있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8절).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제외하신 것은 그나 그의 어머니 하갈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육신

예정 신앙

로마서 9:1~18

“예정 신앙은 운명론도, 우리의 자유권과 선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의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내에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응답하고, 거듭난 자녀라면 이스라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국가적 이스라엘이나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아니

에서와 야곱의 예

또 다른 예를 덧붙입니다. 두 번째 예는 이삭의 두 자녀 에서와 야곱의 예입니다(9:10-13). 첫 번째 예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예는 약속과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11~12절).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뤄 가시는 뜻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녀,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13절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라기 1장 2-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고대 근동문화에서 ‘미워하다’는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 14:26).

가족들을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것만큼

이상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밖의 영역은 우선순위 밖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표현은 가족 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우선순위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선택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30절에서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에 미리 정하시는 선택이 있었고, 미리 아심이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두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행실을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었고, 미리 정하심이 있었고, 미리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예정 신앙’이 나옵니다.

예정 신앙,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예정 신앙이란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정 신앙에 대한 고백이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영원한 안전, 성도의 견인이라는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이 영원하고 안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의 선행과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믿음이 예정 신앙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예정 신앙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운명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에서는 예정 신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13면에 계속〉

르포 미야자키, 길 위에 서다

미야자키가 변하면 일본이 변한다!

신화(神話)의 고향에서 발견한 믿음 그리고 새 희망

‘신화(神話)의 고향 미야자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야자키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문구가 이곳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것 같았다. 미야자키는 신화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일본 초대 천황 진무천황(神武天皇, 일본 건국신으로 추앙받음) 신화의 배경지가 바로 미야자키다. 진무천황은 신토(神道; 일본 고유 종교) 최고의 신 ‘아마테라스’(태양신)의 자손이다. 아마테라스는 팔백만 신이 존재한다는 일본에서도 최고위에 있는 신이다. 미야자키는 일본 건국 역사의 기원지라는 자부심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다.

지리적으로 미야자키는 일본 규슈 남동쪽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다. 남국 느낌이 물씬 나는 곳이다. 그래서 ‘일본의 양지(陽地)’라는 별칭도 있다. 미야자키는 ‘평화(平和)의 도시’이기도 하다. 미야자키의 랜드마크인 ‘평화의 탑’이 이것을 상징한다. 그런데 평화의 탑은 그 의미와 거리가 멀다. 평화의 탑을 쓴 제국주의 잔재이기 때문이다. 우상숭배와 거짓 평화의 영이 가득한 미야자키에도 기독교 선각자들이 있었다. 그 흔적을 찾아 미야자키, 길 위에 섰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미야자키신궁, 평화의 탑, 클라크 도로, 이시이 주지 동상(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신화의 고향, 일본 역사의 기원지라고 불리는 미야자키로 가는 길이 꽤 고됐다. 현청 소재지 임에도 신칸센이 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오카국제공항에서 구마모토까지 신칸센을, 구마모토에서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장장 4시간 걸려 미야자키에 도착했다. 미야자키는 어떤 곳일까? 인상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께 물었다.

“미야자키는 신사(神社)가 유명해요. 어딜 가나 큰 신사가 있어요.”

누가 신화의 고향 아니랄까 봐 미야자키에 대해 물으니 신사를 가장 먼저 소개했다. 그렇다면 미야자키 교회 성도들은 ‘신화의 고향’이라는 별칭을 어떻게 생각할까? 모리사키 마리코 성도(72세, 예수그리스도미야자키복음교회)는 “정말 슬프다”는 표현으로 그 답을 대신했다.

“미야자키는 우상숭배의 고장입니다. 마츠리(축제)도 정말 많이 열립니다. 축제가 열릴 때마다 행렬이 어마어마한데, 그만큼 우상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슬프니

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우상숭배 고장의 상징 ‘미야자키신궁’과 ‘평화의 탑’

미야자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미야자키신궁(神宮)’에 갔다. 미야자키신궁은 진무천황을 모시는 신사다. 신궁은 신사 중에서도 천황가와 관련 있는 신을 모시는 신사를 가리킨다. 미야자키신궁은 前 천황 부부를 비롯해 황가 사람들이 꼭 찾을 정도로 유서 깊은 곳이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움과 신비스러움이 묻어났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단체객들에게 신궁이야기를 재미있게 설명하는 가이드와 흰 적삼에 붉은색 치마를 입은 신녀(神女)도 4명이나 있었다. 이들에게 미야자키신궁의 역사와 의미가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 함장해서 절하고, 운세가 적힌 종이를 뽑고, 부적을 사는

모습이 경건하기까지 했다. 일본의 건국신도, 태양신으로 추앙받는 아마테라스도 한낱 우상에 불과한데 말이다. 신궁이 주는 압박감과 두려움,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했다.

‘헤이와다이공원(平和台公園)’에 있는 ‘평화의 탑’으로 향했다. 미야자키신궁에서 자동차를 타고 북서쪽으로 6분 정도 가면 공원이 나온다. 평화의 탑은 진무천황이 일본을 건국한 지 260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서 1940년 만들었다. 해발 60미터, 높이가 36.4미터나 되는 거대한 탑이다. 그런데 이 탑에는 이름과 달리 평화가 없다. 탑 앞에 있는 비문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일본 건국 2600년을 기념하는 이 탑은…(중략)… 일본 국내를 비롯해 당시 세계 각지에 있는 일본인 단체 및 우호국들에서 가져온 돌 1,789개로 만들었다.”

1940년은 일본이 대동아공영론 기치 아래 한창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시기다. 비문에 적힌 ‘우호국’은 일제 점령지다. 조선을 포함해서 아시아 각국에서 수탈해온 돌들로 탑을 쌓은 것이다. 탑 정면에 ‘八紘一宇(팔굉일우)’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새겨져 있는데, ‘온 세계가 한 집안처럼 지내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표어다. 이 탑은 평화로 포장된 일제의 세계 정복 야욕의 산물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눅 2:14).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미야자키에 평화의 탑을 쓴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다.

미야자키의 기독교 선각자들 이시이 주지와 사이러스 클라크

우상숭배의 땅 미야자키에도 기독교 선각자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일본 고아들의 아버지, 일본의 조지 물러 ‘이시이 주지(石井十次)’다. 그는 1865년 미야자키현 다카나베초 출신이다. 오카야마와 미야자키에서 일생을 고아 구제에 헌신했다. 이시이 주지에게 인생의 방향과 믿음을 전해주고, 그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해준 사람이 ‘오가와라 도도헤이’라는 크리스천 의사다. 오가와라 도도헤이는 갈피를 못 잡던 이시이 주지에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애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잊지 않으면 어느 길을 가더라도 만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 덕분에 의사가 된 이시이 주지가 고아사역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역시 기독교 신앙이다. 우연히 사정이 딱한 고아 1명을 맡아 키우게 됐는데, 그 소문이

삼시간에 퍼져나가면서 고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 늘어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시이 주지가 고민에 빠졌다. 의사나, 고아구제나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성경이 그 답을 알려줬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마 6:24).

‘그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자.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불쌍한 아이들을 구제하는 사람은 적다. 내 인생을 바쳐 아이들을 섬기자!’

이시이 주지는 의사를 포기하고 고아구제에 헌신했다. 1887년 오카야마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고아원을 설립, 1907년에는 그 수가 1,200명이나 됐다고 한다. 그가 수많은 고아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힘도 신앙과 기도였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도하기 위해 앉았던 돗자리가 깊이 파였을 정도다. 이시이 주지의 흔적을 러브소나타 미야자키가 열린 메디키트 현민문화센터 가까이에서 발견했다. 문화공원(현민문화센터가 있는 공원) 북서쪽 끝 자락에 그의 동상이 있다. 그의 동상 양옆에는 어린이 두 명의 동상도 있다. 이시이 주지 동상이 오른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아이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듯하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다.

미야자키의 기독교 선각자가 또 있다. 미야자키를 누구보다 사랑한 파란 눈의 이방인 ‘사이러스 클라크(Cyrus Alonzo Clark) 선교사’다. 1892년 미야자키에 온 클라크 선교사는 1924년까지 약 33년 동안 복음 전도와 사회사업에 크게 공헌했다. 교육과 장애인 인권 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유치원과 훈맹원(지금의 현립맹학교)을 개설했고, 자택을 여학생 숙소로 개방해 영어와 양재(洋裁), 서양요리를 가르쳤다. 클라크 선교사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 700명의 시민이 모여 그와의 이별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미야자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미야자키를 사랑했다. 그의 흔적을 JR미야자키역에서 남서쪽으로 약 7분 걸어가면 나오는 ‘사카에마치아동공원’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곳에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클라크 선교사의 이름을 딴 도로(거리)도 있다. 그의 동상이 있는 공원과 다치바나거리(미야자키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약 700미터 도로 이름이 ‘클라크 도로(Clark St.)’다. 하나오카 코이치 목사가 사이러스 클라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새 희망을 노래했다.

“저는 일본 역사가 시작된 미야자키가 변하면 일본이 변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야자키가 구원받으면 일본이 구원받는 영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미야자키 러브소나타에서의 아주 특별한 만남



미야자키에서 만난 하나오카 목사 가족, 구로키 성도, 이노우에 목사 가족.

러브소나타 미야자키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가 있다. 아주 특별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생명 살리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 먼저 천국으로 보낸 자녀를 기리며 온 가족이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미야자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러 일본 전역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일본비전교회(동경, 오사카, 요코하마, 아치오, 우에다, 나고야, 교토) 성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생명을 가르치고, 생명을 지키고 하나오카 목사와 구로키 성도

하나오카 코이치, 하나오카 세이코 목사 부부(미야자키크리스천커뮤니티처치,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실행위원장)는 이 지역에서 유명 인사다. 출산율이 낮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무려 자녀 7명을 낳아 대가족을 이뤘기 때문이다. 하나오카 목사 부부가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방과 후 수업 일환으로 소학교(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생명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수업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교육’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다.

“일반적인 생명수업이나 성교육은 주로 피임이나 낙태 옹호 등을 설명하는데, 저희 부부는 성경적 성교육을 합니다. ‘가미사마(신)을 일컫는 말’가 주신 생명은 소중하고 귀하다’, ‘낙태는 가장 작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자기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혼전순결)’ 등을 가르칩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 직업이 목사라는 것을 알아서 학생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미사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웃음).”

하나오카 목사 부부는 학교 생명수업 외에도 생명 살리는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작은 생명을 지키는 모임(小さないのちを守る, 일본 프로라이프 단체)’ 미야자키 지부 대표를 하나오카 코이치 목사가 맡고 있다.

“임신한 학생이 낙태하고 싶다고 상담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 부부는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병원을 소개해주지 않고, 미혼모가 안전하게 아이를 낳도록 돕는 시설과 입양단체를 주선해주고 있습니다. 낙태는 가장 작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고, 아기를 낳아 소중한 생명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면서요. 한번은 낙태 하려던 미혼모와 남자친구가 마음을 돌이켜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생명을 살려낸 어린 부모의 결단이 감사하고 대견했습니다.”

성경적 결혼관과 생명관을 설명하는 생명수업은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여기지는 않을까? 하나오카 목사도 그 점을 통감하고 있었다.

“생명수업은 정규과목이 아니고, 수많은 방과 후 수업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대개 프로초이스(임신중절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는 입장)적 성교육이 일반적입니다. 수업 중에 특정 종교를 포교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적 생명수업이 정규과목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상숭배만큼이나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전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수업과 프로라이프운동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오카 목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제가 30년 전 목사 안수를 받고 두 달이 채 안 됐을 때 서울 온누리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님(동경온누리교회 담당)이 통역해주셨습니다. 그날 집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젠가 일본에서 이런 집회가 열리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를 계기로 영적인 변화와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미야자키 교회들을 위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구로키 마사코 성도(69세, 예수그리스도미야자키복음교회)가 주인공이다. 구로키 마사코 성도는 전화상담원이다. 그녀의 전화상담은 아주 특별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을 권고하는 ‘생명의전화’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로키 성도는 자신이 생명의전화에서 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했다.

“어느 날 TV 뉴스에 생명의전화 자원봉사자 모집 광고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또 다음 날에도 자원봉사자 모집 광고가 계속 나왔습니다. 다른 광고도 많았는데 유독 생명의전화 자원봉사자 모집 광고만 눈에 들어오고,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신청했습니다. 사무국에서 240문장으로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는데, 써도 써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 채워야 하나 2주 동안 고민하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달라고요. 그때 주신 말씀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 말씀을 시작으로 지원서를 순식간에 채웠습니다. 그때 ‘아,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전화로 보내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의전화에서 상담하면서 구로키 성도는 매일같이 미야자키 사람들의 심각한 영적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전화상담을 하다 보면 가슴 아픈 사례들이 많습니다. 동성(同性)을 사랑해서 괴롭다는 사람,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가정학대 및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 자살하기 직전의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상담할 때는 절대 기독교나 예수님을 언급할 수 없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삶의 끈을 놓으려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나 혼자 사는 이들에게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가까운 교회에 가서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한번은 이단 신자였는데, 밤마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한 영에서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구로키 성도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러브소나타 집회를 열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 야마가타에서 열린 러브소나타 집회 영상을 몇 번이나 보면서 하나님의 일본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야자키에서도 러브소나타가 열려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러브소나타를 시작으로 미야자키 교회들이 부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한국에서 수많은 성도가 와서 함께 기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사랑을 가슴에 되새기며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노우에 목사 가족, 이리에 성도 부부

러브소나타 미야자키에는 특별한 봉사자들도 총출동했다. 일본 비전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다. 이노우에 마키 목사(TIM Japan, 오사카온누리교회 협력목사)는 아내 테루코 사모와 작은딸 아름(13세)이와 함께 미야자키를 방문했다. 그에게는 또 한 명의 딸 ‘카논’이 있었다. 이노우에 가족에게 카논은 아픈 손가락이다. 2016년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기 때문이다. 카논은 비록 이 땅에 없지만, 러브소나타 미야자키에 함께 했다. 카논의 이야기를 담은 전도지를 나눠줬기 때문이다.

“카논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면서 정말 많이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 괴로운 심정을 신앙으로 이겨내면서 묵상한 글을 담아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카논의 이야기를 담은 전도지를 받고 미야자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를 돕기 위해 일본 비전교회 성도들도 두 팔 걷어붙였다. 73여 명의 비전교회 성도들이 생업과 열 일을 제쳐두고 먼 미야자키에 왔다. 이리에 쿠니히로 집사(동경온누리교회)가 미야자키에 온 이유를 설명했다.

“미야자키는 일본에서도 미신(우상숭배)이 강한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러브소나타가 열리는데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렙니다. 무엇보다 한국 성도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가 매일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나누는 이유

스마트 헬스케어 스타트업 (주)모닛 대표 박도형 순장



박도형 순장이 디아코니 요양원(독일)과 업무 협약을 맺고 맥스 시스템을 전달하고 있다.

“기저귀에 센서(sensor)를 부착하면 어떻게?”

(주)모닛 대표 박도형 순장(서초D공동체)의 변칙이는 아이디어가 실제 탄생했다. 선한 영향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온누리요양센터와 (주)모닛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외상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성인 기저귀 케어 시스템 ‘MECS(맥스, 이하 맥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 간병에서 가장 힘든 업무 중 하나인 기저귀 교체와 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박도형 순장이 운영하는 (주)모닛은 스마트 헬스케어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스마트 아기띠, 기저귀 센서 등을 개발해서 육아를 돕고 있는데 부모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센서가 기저귀 대소변 양을 감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부모들의 일손을 덜어준다. 처음에는 아기들을 위한 기저귀 센서를 개발했는데 지금은 더 큰 도움이 필요한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기저귀 케어 시스템 ‘MECS(맥스)’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다.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것 같았다”

(주)모닛 대표 박도형 순장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변칙이는 아이디어와 섬김의 근원도 다름 아닌 신앙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라는 그의 신앙고백이 무척 인상 깊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있을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주신 분이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고백이 어디서 왔을까? 박

도형 순장은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 딱 그 상태였다.

“부모님이 시골 순복음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저에게는 진짜 신앙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에 의지하고, 주일날 교회에 출석한것만으로 만족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에 불과했습니다.”

박도형 순장은 그 당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성공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다. 한다. 패션디자이너 출신으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로 실력이 있었다. 국내 우수 대기업이 개최한 창업 프로그램에서 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어 2017년 벤처기업 (주)모닛을 창업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낸 아이디어가 창업 프로그램에서 선정됐고, 대기업의 투자를 받아 안정적으로 분사를 했습니다. 분사하자마자 대형 기업과 납품 계약을 따내고 창업 초반에는 적은 매출도 내기가 어려운데 모닛은 분사한 지 2년도 안되어 수십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후속투자 유치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잘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도형 순장의 오만(傲慢)과 오산(誤算)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2018년 그가 미국에 가면서부터 고난은 시작됐다.

“UC버클리대학 재단 스카이텍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할 테니 1년 동안 자신들과 함께 인큐베이션(벤처 창업 아이디어 육성단계) 과정을 함께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글로벌 회사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동 창업자들에게 회사를 맡기고 미국에 갔습니

다.”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풀리지 않았다.

“핑크빛 상상만 하고 미국에 왔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일이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닥친다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회사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던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쟁쟁한 이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자신의 의견과 주장이 옳다고 싸워서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진척이 되지 않는데 투자금은 빠르게 소진되어 갔습니다.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절망과 공포만 가득했었습니다.”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했던 그때 마지막에 참가한 교회 수련회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당시 미국에서 다니던 한인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진짜 가기 싫었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는 마당에 무슨 수련회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안 갈 핑계가 없어서 ‘하루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귀가 아닌 온몸을 통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지금 같은 상황이 됐는지 이해가 되자 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도형 순장의 신앙과 생각이 완전히 변했다. 자신의 죄를 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가장 먼저 술을 끊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을 옛날이야기나 동화라고 치부했었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실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회심하고 신앙을 새롭게, 삶을 새롭게 만들며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

“큰일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상태로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 싶어서 원통하고 창피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미국 생활을 정리하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과 행정절차가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2019년 10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국이 코로

나19 발발 초기에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만약 그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더라면 회사도 저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없었다면 저와 회사는 살아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회심하고 돌아온 박도형 순장을 보고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내에게 ‘술을 끊었다’고 말했더니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나면서요(웃음). 그런데 제가 진짜 변하니깐 ‘이 사람 진심이구나’하고 인정해줬습니다. 제가 순장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아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도 지나지 않아 순모의 역할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새벽기도도 시작했다. 매일 큐티묵상도 한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예수동행일기’도 빼놓지 않고 쓴다. 이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설교와 큐티묵상 내용을 정리해서 날마다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주로 자신처럼 돌아온 탕자나 하나님을 떠난 친구들에게 보낸다.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살았던 박도형 순장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처럼, 그들도 바꿔주시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 열매도 있다.

“매일 큐티묵상 말씀을 보내도 반응이 없던 친구가 얼마 전에 ‘감사하다’고 답신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했고, 감사하더라고요. 또 1년 넘게 기도해온 거래처 담당자가 계신데, 그분이 얼마 전 교회에서 열린 ‘C.S. 루이스의 밤’ 행사에 오셨습니다. 역시 기도는 하나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박도형 순장에게 매일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타인과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어떤 분들은 사업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순장도 하고, 매일 새벽기도도 하고, 큐티하고,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과거의 모습이었던 저도 똑같이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영적싸움의 연속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것과 아닌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혹도 많고, 세상적인 편법이 난무하는 곳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본을 보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호흡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 모닛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전문가 기고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물 ‘은사(달란트)’를 대하는 태도



한건수 교수
(수원온누리교회,
국민대 겸임교수)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경험을 종종한다. 소개하는 자리와 대상에 따라 어떻게 소개할지 고민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역할로 자신을 소개한다. 학생의 경우 “OO학교 O학년 학생”이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성도의 경우에는 “OOO교회 성도”로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소속을 빼고 자신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필자가 대학에서 ‘과’와 ‘학년’을 빼고 옆 학우에게 자신을 소개해보라고 했을 때 당황한 학생들의 표정은 이 질문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공동체 외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선물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번 칼럼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

사진 한 장이 있다. 종목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세 명의 선수가 시상대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림픽이 열리면 우리는 흔히 이런 장면을 보게 된다. 이 선수 중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선수를 찾아본다면 어떤 메달을 딴 선수일까? 가운데에 있는 금메달을 딴 선수일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금메달을 제외하고, 은메달과 동메달 선수 중에는 어떤 선수가 더 활짝 웃고 있을까? 은메달? 아니면 동메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이란 책에서 코넬대 심리학과 연구팀의 연구를 소개하며, 메달 획득 순간과 시상식에 서는 순간 모두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 선수보다 밝은 표정을 지으며 행복해 한다고 하였다. 메달을 획득하는 순간 은메달과 동메달 선수 모두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다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안타까워서 운다. 반대로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기뻐서 운다. 시상식에 선 순간 은메달을 딴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의 경우 ‘조금만 더 속도를 냈다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웠던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동메달 선수는 반대일 것이다. 아쉬운 순간도 많지만 그런데도 메달을 딸 수 있었던 좋았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다. 잘못하면 메

달을 따지 못한 노메달리스트가 될 수도 있었는데, 메달을 얻은 것에 행복해하는 것이다. 은메달 선수는 메달의 색이 중요하지만, 동메달은 메달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은메달 선수가 동메달 선수보다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객관적인 소유와 주관적인 행복이 비례관계는 아니라는 말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지만,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동메달 선수와 같은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현재 객관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지만 놓친 것을 아쉬워하며 후회하는 은메달 선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놓친 순간도 많지만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동메달 선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물의 소유주였던 그분은 한 층이 일 년 동안 비워진 상태로 있었다며 원하면 무료로 사용하라고 하셨다. 너무 놀랐다. 그 시기 집 근처에 사무실과 강의장을 함께 겸비한 공간이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며 귀한 도움을 받아 그 공간을 리모델링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을 잘 관리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에 ‘조금 더 좋은 건물이 있다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감사’의 자족보다 더 좋은 건물에 눈길이 가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이 그러하니 처음 마음과 달리 사무실 관리도 소홀하게 되고, 잘 활용해야 한다는 부담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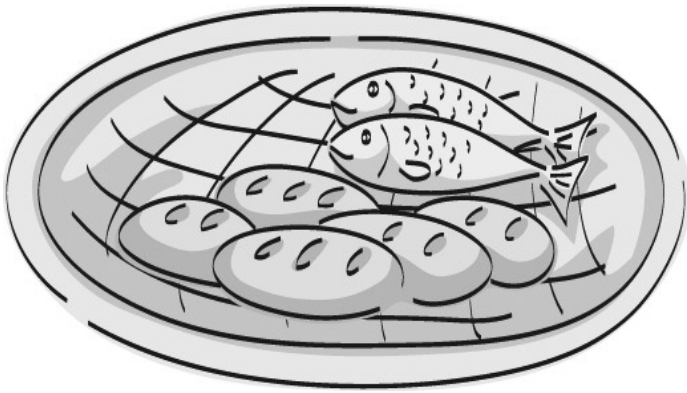
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전 12:8-11).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귀한 선물이 정말 다양하다. 그런데 주신 분은 주셨다고 하시는 데 받은 사람이 받지 않았다는 듯이, 주시지 않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어떠할까? 1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이 주신 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분명 은사(달란트)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자신은 비교하느라 인정하지 못하고, 은사라는 선물을 간과하거나 축소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은사(달란트)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질 것이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과 제자를 따라 수많은 사람이 빈들에 모여 있다. 제자들은 이백 데나리온으로 떡을 사서 먹여야 할지 예수님께 질문했다.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때 한 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민다.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이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열두 바구니에 넘쳐났다. 그것을 경험한 이가 오천 명이나 되었다.

만약 나에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빈들에 모인 수많은 성인이 한 눈에 들어오는 상황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혼자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먹거나 숨긴 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군중이 아닌 예수님으로 시선을 옮기면 어떠할까? 가진 것은 적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 손에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다. 나에게 주신 재능뿐 아니라 자녀, 남편, 아내는 어떠한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가? 다른 가정과 비교할 때 부족한 것 투성인가? 내 기준으로 너무 부족해서 다른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것이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 수많은 사람을 먹고, 입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은 없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드러지는지를 보기를 바란다. 예수님께 드러진 은사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은 없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드러지는지를 보기를 바란다.
예수님께 드러진 은사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메달리스트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에 따라 주신 ‘은사(달란트)’를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보기 위함이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잘 경영하기보다 없는 것을 주목하고, 비교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계 2위라는 위치에도 안타까워하는 은메달리스트의 마음과 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노인복지관에서 강의 요청을 받은 경험 이 있다. 강사료가 적다며 죄송한 마음에 이메일로 강의 요청을 하셨다. 마침 일정이 가능하기도 하고, 전에도 강의했던 노인복지관 인지라 기쁜 마음으로 갔다. 특강이 끝나고 한 분이 인사를 하시며 필자에게 어디 사는지 물어보셨고, 다음에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1~2개월 지났을 즈음 그분이 문자 메시지를 주셨는데, 집 근처에 개인 사무실이 있는지 물으시며 주일에 해당 주소로 한번 놀러 오라고 하셨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한 건

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눈에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역까지 넓혀본다면,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과 다르게 받는 이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드러지는지를 보라!

성경에서는 은사(달란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

라떼는 말이야

“정말로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을 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 거북한 사람, 싫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멘토님!”

며칠 전이다.

“남편, 이 옷 어때요?”

평소 쇼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내가 오랜만에 옷 가게에서 새 옷 한 벌 입을 사진을 보내왔다. ‘이런...’ 그런데 나는 그 옷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잠시 후 답장을 보냈다.

“아내는 참 예쁘데 그 옷은 좀 덜 예쁘다.”

그날 저녁 집에 와 보니 그 옷이 와 있었다. 아내가 다시 한번 그 옷을 꺼내 입고 “남편, 어때요?”하고 묻기에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옷을 사랑할 것이다!’라고.

“자기야, 사진으로 볼 때는 잘 안보였는데 지금 보니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촉감도 괜찮네.”

“그치요?!”

기쁨의 미소를 짓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주

님께 감사드렸다. 그래, 나는 이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다. 내 판단과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이의 얼굴에 기쁨의 꽃이 피도록 살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어느 날 정진호 장로님의 강의를 듣다가 큰 감동을 받았다. 정진호 장로님은 회사 건물 10층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 영업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투자부를 축복해 주시고...’라며 부서 하나 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신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해보자 싶었다. 좋은 것은 무조건 따라해 보는 것이 인생의 지혜일 것이다. 그날부터 출근길에 우리 회사 리더십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고, 우리 본부의 팀장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다. 일단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 주기 싫은 사람부터 이름을 불렀다. 그 반대로 하면 아마도 그 사람들은 뼈먹기 십상일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무실에 도착하면 마치 전투에 나가기 전에 든든한 갑옷을 차려 입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내가 “중요한 회의에 갈 때 하 이heil을 신으면 갑자기 자신감이 올라오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 이런 기분이 아닐까 싶다. 그래! 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싶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들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멋진 삶을 살고 싶다.

50대 중반이 되고 보니, 인생에서 사랑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더 젊었던 시절에는 일에서 완벽을 추구하느라 언제나 사람보다 일의 완성을 중요시 했었다. 내 전문 영역에서 확실하게 내 위치를 구축하고 성공하고 나면, 그때부터 나도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에도 신경을 쓰리라 했었다. 가진 것 아무 것도 없는 내가 남을 돌보고, 남들처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것은 턱없는 사치라고 여겼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공 이후로 미루곤 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밀어내고 모든 것을 성공 이후로 미루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였다. 그 끝은 허망한 외로움과 황폐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노래하듯,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내 인생에서도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도 울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 돌아와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 같이 기도한다.

“주님, 그저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의 매일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제가 주님께 가는 날, 더할 나위 없이 활짝 핀 사랑의 국화꽃 한 송이 되어 가게 하옵소서.



허식 멘토
(CHPLUS청년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의 성적 친밀감 점검과 회복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서로 점검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부부의 친밀함’이다. 특히 성적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 생활 만족에서 성적 친밀함이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다른 많은 것이 채워지고 허락되어도 부부가 성적으로 충분히 친밀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면 결혼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된다. 때문에 부부는 서로 성적인 면에서 관심을 갖고 대화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배우자의 성적인 친밀감을 누리기 위한 필요가 무엇인지 들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부는 성적인 측면에서 서로 멀어지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된 부부라면, 그 시기 전후로 성적인 접촉을 조심하게 된다. 이 시기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남편들도 있다. 자신에게 욕구가 있지만 표현하지 않고 회피하기도 한다. 출산 전후 아내는 많은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은 터라 성적 접촉에 관해서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 할 여유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저러 시간이 지나서 부부가 다시 성적인 친밀함을 누리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부부가 육체적으로 떨어져 버린다면 큰 친밀감을 놓치는 것이다. 출산 이후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성적으로 어색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잠을 재우기 시작하면 부부의 신체적인 거리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 임신과 출산 등 가족생활 주기의 변화 시기에 부부는

잘 유지되어오던 패턴에서 이탈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가족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은 가정에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과도한 직장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부부가 성적인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다.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집중하면서 일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일과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억누르게 된다면 개인적인 심리정서상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낭만적인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부부 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스트레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친밀감의 측면에서 본다면 부부가 직장생활, 대인관계 등에서 받을 수 있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관계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부부관계가 최근 소원해졌다면, 특히 성적인 친밀감을 누릴 여유가 없는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우선 멈춰서 자신과 부부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원인으로 오랫동안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다. 보통 섹스

리스 부부란 한 달에 일 회 이하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부부를 지칭한다. 사실 한 달에 일 회 정도 부부관계를 가진 부부를 섹스리스로 구분하는 것이 다소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만일 여러가지 일로 한 달을 지나쳐 버리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가 섹스리스는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성적으로 어색해진 상태가 되었다면 용기 내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건강한 부부는 대화를 투명하게 잘 나누는 모습을 보인다. 성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부부가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다면 매우 건강한 부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적인 자신의 필요와 요구, 기대와 좌절, 경험되는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인 이야기를 쉽게 표현하고 듣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부부는 성적인 친밀감에 대해 나누는 특별한 기회를 노력해서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긴장감 없는 부부데이트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부부데이트는 그동안 서로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서로 나누기 어려웠던 이야기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다. 다소 어색하고, 성적으로 멀어졌던 부부라면 부부세미나 등에서 용기 내서 나눌 기회를 얻는 것도 좋다. 부부세미나 외에도 부부가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필요와 기대를 나눌 기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 분위기를 새롭게

게 하는 등의 노력과 대화를 통해서 성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부부가 성적으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배우자를 보면서 미운 감정과 싫은 감정이 쌓이기도 한다. 이 감정들이 화와 짜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화와 짜증은 자연스럽게 부부의 갈등과 다툼이 된다. 간혹 어떤 사람은 결혼 관계에서 성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부부관계가 견고한 상태가 아니라면 어느 때보다 유혹에 취약해진다. 그 유혹의 끝은 대단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적인 연합은 부부를 강력하게 묶는 힘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부부의 성적인 친밀감 정도가 어떤지를 정기적으로 서로 확

인해보고 나눌 필요가 있다. 자신도 모르게 성적으로 멀어져 있는 부부라면 진지하게 성적인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참 5: 18~19).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목사가 추천하는 ‘신앙교육여행지’

우리나라 기독교 근대역사를 찾아서!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과 ‘이화박물관’ 을 가다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나우리트 대표)

수도 서울의 지하 철 2호선 시청역하 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가? 우선 뽁뽁 하게 들어선 빌딩 숲 속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서울특별 시청 건물이 보인 다. 그 아래 푸른 마 당처럼 서울광장이 펼쳐져 있다. 뒤를 돌아 시선을 옮기면 대한문을 입구로 삼고 있는 덕수궁이 자리 잡고 있다. 궁의 돌담을 따라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고 남겨둔 약간 좁은 그 길을 걷다 보면 알게 된다. 이곳이 바로 노랫말에도 담겨있는 그 유명한 ‘덕수 궁 돌담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왼 쪽에 서울시립미술관 입구가 보인다. 이 정 도면 시청역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대부분 을 다 본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여기서 멈추면 너무 많은 것을 놓치는 꼴이 된다. 더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가보자. 그러면 세 갈래 길이 나오 고, 그 갈래의 중앙에 높은 십자가 종탑과 붉 은벽돌 건물이 보인다. 우리나라 최초 프로 테스탄트 교회 건축물인 ‘정동제일교회’다.

조선에 파송된 감리교단 3인의 선교사는 자신의 달란트에 맞는 사역을 펼쳤다. 의사 인 윌리엄 스크랜튼은 병원을 개원해 활동 했고, 해외여성선교회 파송을 받은 멜리 스

크랜튼(윌리엄 스크랜튼의 어머니)은 여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다(이후 이화 학당이 됨). 목사인 아펜젤러는 2명의 학생 과 함께 학교를 시작했다(이후 배재학당이 됨). 이 세 사람이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 며 교제하고 선교 조선의 미래를 그린 공간 이 바로 오늘의 정동제일교회다.

배재학당은 감사하게도 당시 동관 건물 하 나를 남겨 놓으며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이 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해 새롭게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배재학당은 2명으로 출발해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선교사들의 입국, 사역, 헌신으로 대한제국의 근대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선봉에서 훌륭한 모델이 되어준 학교가 바로 배재학당이다. 배재는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는 뜻이다. 설 립목적이 기독교인 양성과 근대 국가의 인 재를 배양하는 데 있고, 그 목적에 충실한 학 교였다. 배재학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 재학당역사관 1층 교실 체험관에서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을 감상하며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욕위대자(欲爲大者) 당위인역(當爲人役)”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눈에 띄는 한자가 보인다. 당황할 필요 없다. 반대편에 한글 해 석이 쓰여 있다. ‘곧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 기라’는 뜻이다. 마태복음 20장 26~28절 말 씀을 바탕으로 한 배재의 교훈이다. 말씀을 한자로 보고 또 그 뜻을 헤아려보는 묵상과

함께 당시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이곳을 돌 러보면 정말 좋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을 나와 정동제일교회를 왼편에 두고 이어지는 길을 약 5분 정도 걸어가면 이화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을 통 해서 우리나라 여성 교육의 역사를 볼 수 있 는 ‘이화박물관’을 발견할 수 있다. 아들과 함께 조선에 온 스크랜튼 여사는 당시 53세,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다. 하지만 그녀의 조 선을 향한 마음, 특히 여자아이들을 향한 사 랑은 그 어떤 젊은이들에게도 뒤지지 않았 다. 처음으로 배움을 청한 한 명을 외면하지 않고, 그와 함께 수업을 이어간 것이 이화학 당의 시작이다. 시간이 흘러 이화학당은 한 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당당히 세워 졌다. 이화박물관은 이화학당 창립 120주년 을 맞아 개관한 박물관이다. 박물관 건물은 ‘심슨기념관’인데 미국인 사라 J. 심슨이 위 탁한 기금으로 건립되었다. 1915년 건립 이 후 증축과 전쟁으로 인한 붕괴 그리고 복구 등의 시련을 맞이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등록문화재 제 3호로 지정되었고 2011년 옛 원형을 복원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화박물관은 이화의 역사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 이화의 역사를 통해서 펼쳐진 대한민국 여성 교육의 변천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통여성 교육에서 시작해 근대,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현대, 그리고 미 래의 여성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놓은 전시가 박물관의 주요 내용이다. ‘유관순교

실’이라는 이름으로 일제강점기 교실도 재 현해 놓았고, 관련 영상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두었다. 무관심 속에 버려진 가난한 여자아이들을 지나치지 않고 나라의 미래로 키워낸 선교사들의 사랑과 척박한 환경에서 도 순종했던 그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 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아닐까?

-신앙교육여행을 위한 Tip

가족과 함께 정동제일교회의 벤엘에배당 에서 ‘우리나라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두 가지를 찾아보자! 1918년 설치된 오르간 (6.25전쟁 이후 파손된 것을 여러 번에 걸쳐 복구함)과 100년이 훌쩍 넘는 강대상이 바로 그것이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이 감격이다. 본당 1층에 마련된 아펜젤러기념 박물관은 신앙교육여행의 보너스라고 할 수 있다. 놓치지 말자!



기독교 OTT ‘풍당’ 추천 콘텐츠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



‘나침반 바이블’ - 깊이 읽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지금까지 모임이나 예배가 끝날 때 암송하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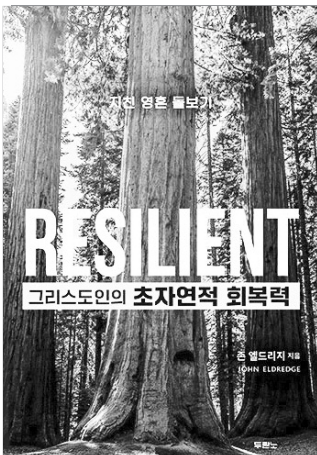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나침반 바이블’ - 깊이 읽는 주기도문에서는 총 12회에 걸쳐 주 기도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렇게 네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기도문을 배워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성도들이 처음 외우는 기도가 무엇일까? 주기도문일 것이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이다. 한국 교회에 서는 예배나 모임이 끝날 때 다 같이 주 기도문을 외우는 문화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나침반 바이블’ - 깊이 읽는 주기도문에 출연하는 김남준 담임목사(열린교회)는 주기도 문의 의미가 되새겨졌다고 지적한다.

두란노 신간

이기는 힘 그리고 견디는 힘!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 회복력》
존 엘드리지 저 | 두란노
| 18,000원

다. 보유고를 채워 넣기 위해서 실제 능력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정하게 가동하는 주, 달, 해의 리듬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리듬은 꼭 휴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양한 리듬을 일상에서 불어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주 어떤 요일의 저녁 시간을 비워 놓을지를 정하라.”

학대를 당한 사람에게 “이제 학대가 끝났으니 트라우마를 떨쳐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금방 털어내려고 한다. 그것도 음식, 쇼핑, 술, 퇴사 등 가짜 위로로 말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잘 될거야”라는 막연한 위로는 아니다. 회복이다.

존 엘드리지는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 회복력》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초자연적 회복력을 말한다.

“그분께 이기는 힘 그리고 견디는 힘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력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 회복력과 다르다. 우리를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책은 오늘날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치기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자신을 혹사하거나 휴가를 가는 식으로 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많은 것들에서 떠날 수 있다. 이 제부터 삶에 대한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강권한다.



봉사자들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서 기도하고 있다.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 반대를 위한 기도 대장정

11월 6일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종료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 반대를 위한 기도 대장정이 그 막을 내린다. 11월 6일(일)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종료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지난 9월 28일(수)부터 시작했다.

전 세계 크리스천 기도 봉사자들이 태아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 반대, 낙태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봄과 가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다.

이번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명동대성당 들머리 앞에서 진행됐다. 온누리교회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기도 봉사를 담당했다.

정현석 목사(고양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세워가는 운동에 동참한 것 자체가 큰 은혜였다"면서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전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윤화 목사(프로라이프 단체 아름다운피켓)는 "내년 사순절에 이어질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콘텐츠 보고, 퀴즈 맞히자

기독교 OTT '풍당' 가입자 10만 이벤트

CGNTV가 국내 최초 론칭한 기독교 OTT '풍당'이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를 축하하는 기독교 OTT '풍당' 가입자 10만 이벤트가 11월 19일(토)까지 진행된다.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를 시청하고 퀴즈를 맞추면 된다. 기독교 OTT '풍당' 가입자 10만 명 돌파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갤럭시 워치5 프로, 레고 스토어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0월 22일(토)과 23

일(일) 진행된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최종 결과가 발표했다. 모두 2,300여 명의 후원자가 참여했으며 연간 4억 9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약정했다.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풍당교회학교 추천을 받는다. 등록교인 100인 이하, 연 결산액 1억 이하, 교회학교 어린이 5명 내외 교회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CGNTV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75-951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오병이어스쿨의 감동적인 세례식

어르신 17명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는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소속 '오병이어스쿨'에서 감동적인 세례식을 연다. 11월 7일(월) 오후 12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오병이어스쿨 어르신 17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 이비오 목사가 세례식을 집례한다.

오병이어스쿨은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사역이다. 예배, 오병이어스쿨, 일대일제자양육 등으로 어르신들을 정성껏 섬기고 있다. 매주 월요일이면 어르신 150여 명이 오병이어스쿨이 열리는 서빙고온누리교회를 찾고 있다.

김정립 소장(오병이어스쿨)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어르신들이 오병이어스쿨에 와서 구원의 확신과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있다"면서 "오병이어스쿨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섬김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평소 궁금했던 말씀에 대한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보도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어린이신문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실을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 제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차세대들이 보낸 작품은 온누리신문에 보도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문의: 02-6959-0001

선교지에 크리스마스 선물보내기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에서 참여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이 뜻깊은 캠페인을 한다. 우크라이나 난민, 과테말라 오수나마을, 온두라스 트레스크루세스마을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기' 캠페인을 한다. 우크라이나 난민, 과테말라 오수나마을, 온두라스 트레스크루세스마을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기' 캠페인을 한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기 캠페인을 한다.

NGO 더멋진세상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기' 캠페인은 홈페이지(abetterworld.or.kr)에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창세기 대홍수 속으로!

대전 꿈땅, 차세대 창조탐험대 3기 참가

대전온누리교회 꿈이자라는땅(이하 꿈땅) 소속 차세대 30여 명이 지난 10월 29일 '차세대 창조탐험'을 다녀왔다.

이번 차세대 창조탐험대는 대전 꿈땅 주중프로그램인 '키즈바이블'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창세기 대홍수 속으로'라는 주제 아래 진안 마이산과 부안 채석강, 적벽강 등지를 방문했다.

차세대 창조탐험대는 온누리교회 차세대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탐사하면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깨닫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전

라북도 마이산, 덕유산, 채석강, 적벽강 등지를 둘러보면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생생하게 공부한다. 지난 8월 창조탐험대 1기를 시작으로 현재 3기까지 진행되고 있다.

서하영 학생(대전 꿈땅1부, 초등5학년)은 "마이산, 채석강, 적벽강을 둘러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했고, 조하경 학생(대전 소년부, 초등5학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탐험하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네 빛을 비추어라'

브릿지33+공동체 새가족 축제

브릿지33+공동체에서 새가족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브릿지33+공동체가 새가족 축제 '네 빛을 비추어라'를 지난 10월 30일(일) 개최했다. 이날 축제에는 새가족 40여 명이 참석했다.

브릿지33+공동체 새가족 축제 '네 빛을 비추어라'는 특별영상 상영, 이영표 집사의 간증, 결신기도, 특순, 블레싱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마리아 목사(브릿지33+공동체)는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면서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역사하심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했다.

/ 정현주 기자

신년에 떠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 이스라엘, 튀르키예

2023년 신년을 기독교 인문학 여행으로 시작하는 기회가 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 이스라엘 편과 튀르키예 편에 참가하는 것이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 '이스라엘 편'은 오는 12월 28일(수)부터 내년 1월 3일(화)까지 6박 7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진행된다. 매일 아침 '구약성경'과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중동전쟁사', '초기의 로마황제', '헤롯왕조의 흥망', '유대인의 자녀교육' 등을 주제로 인문학을 공부한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 '튀르키예 편'은 내년 1월 17일(화)부터 24일(화)까지 7박 8일 동안 튀르키예에서 진행된다. '소아시아 7대 교회', '바울의 전도여행', '신구약중간사'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비잔틴 제국사', '이슬람의 발흥', '오스만터키 역사'를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듣는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 참가신청은 전화(010-4902-1022)로 하면 된다.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문의: 010-4902-1022

서빙고 이웃사랑팀 간증



/ 김윤복 집사(서빙고이웃사랑팀 총무)

‘집사 故 이토 다이치(伊藤太一)’
늦가을 어둠 속 양평의 한 장례식장에서 그의 영정사진은 웃고 있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 단체채팅방에 긴급 메시지가 떴다. “한 일본인 성도의 장례를 치를 지원금을 요청합니다.” 목사님도 빠듯하게 운영하는 팀 사정을 잘 아실 텐데 얼마나 답급하면 저러실까? 회계를 맡은 이은정 집사가 운을 뚫었다.
“지난해 모 집사님께서 현금하신 예비비가 통장에 남아있는데요. 운영회의 때 ‘고독사’하신 분들의 장례를 위해 쓰기로 한 것 아닌가요?”
그 현금이 장례를 담당하는 일본어예배로 전해졌다. 누가 빈소를 지키고 운구하고 안장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 이웃사랑팀의 대표 장로님, 팀장님, 총무님들이 달려왔다. 감사하게도 신용산공동체에서도 대표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이 달려왔다. 그렇게 이토 집사의 장례팀이 구성되었다.
이토 집사는 한국에 머무는 아내의 병이 나으면 곧 떠날 거라고 달랑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한국에 왔다. 그 시간이 30년으로 변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는 크리스천만 보면 ‘허망한 이야기를 진짜처럼 꾸며 믿

어떤 장례식

는 사기꾼’이라고 미워했었다. 어느 주일 날 평소처럼 아내를 온누리교회에 데려다주고 떠나는 순간 환하게 웃으며 포옹하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기도 해주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6:9)”는 말씀을 전했다. 그 말씀을 듣고 이토 집사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일본에서는 가족과 섞이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떠돌이 이방인으로 살면서 괴로워하던 그였다. 그런 자신을 누군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이토 집사는 온누리교회와 하용조 목사님을 향한 가슴앓이를 시작했다. 러브소나타 집회 조연을 하고, 일본 비전교회 임대차계약에도 나서며 온누리교회를 도왔다. 당시 일본에서도 몇 안 되는 이태리 유학과 출신 공간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살려 온누리교회 선교관 5층에 있는 경찬홀을 예배와 공연, 스포츠가 가능한 다목적홀로 설계했고 그 후에도 조용히 예배를 섬기며 지낸 세월이 30년이다.
입관 예배에서 본 이토 집사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하용조 목사님과 만나 천국에도 세울 온누리교회를 디자인하며 즐거워하지 않을까?

사회선교부 간증



/ 김정림 은퇴목사(오병이어스쿨)

오병이어스쿨과 엔젤트리

사회선교부 ‘오병이어스쿨’은 구제현금을 받으러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섬기자며 권사님 몇 분이 모인 것이 그 시작이다. 오병이어스쿨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노숙자가 아니다. 그 어르신들은 어디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다. 그 어르신 한 분 두 분을 모셔놓고 섬기기 시작한 사역이 이제는 매주 월요일 150여 명이 서빙고온누리교회에 모인다.
오병이어스쿨에서는 어르신들과 함께 네달간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4주 일정으로 오병이어스쿨을 열고 예수님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일대일제자양육도 연결해서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 어르신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 년에 한 번 세례식이 열리는데, 올해는 어르신 열 일곱분이 세례를 받을 예정이다. 그 어르신들이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어디에서도 대접받기 어려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한결 좋아졌다”고 고백하신다.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가 엔젤트리를 통해서 오병이어스쿨과 그 어르신들과 섬기고 있다. 그 어르신들은 엔젤트리가 일률적인 봉사가 아니라 자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뜻밖의 선물이라며 정말 좋아하신다. 지난해

한 어르신은 “쌀은 주민센터에서 주니까 혼자 자서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또 다른 어르신은 “반찬으로 먹을 멸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 어르신들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컵라면과 멸치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또 한 분은 “나는 예수를 절대로 안 믿는다”면서 복음을 거부하셨다. 그 어르신의 자녀가 병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깊은 것 같았다. 일대일제자양육까지 연결했는데도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셨다. 그 어르신께도 엔젤트리를 소개했는데 “가지고 싶은 게 없다”고만 하셨다. 그 어르신의 사연을 뽑은 어느 성도님이 ‘이 성경을 읽어 보시는 분은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다’라는 짧은 메시지와 성경책을 보내주셨다. 그 어르신이 난생처음 성경책을 천천히 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셨다. 평생 울어본 일이 없었던 그 어르신이 아이처럼 영영 우셨다. 이 어르신이 다음 주에는 세례를 받으신다. 첫 만남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여러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오병이어스쿨에서 세례받으실 어르신들과 엔젤트리를 섬기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세례 간증



/ 이상인 성도(노원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나는 교회를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다. 친구의 부탁으로 가끔 구경 가듯이 다녀본 것이 전부였다. 가정에서도 종교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었다.
지난해 봄 아내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박종길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했다. 동시에 교회를 다니고, 두란노결혼예비학교에서 교회와 가정에 대해 배웠다.
나는 매주 설교와 강의를 듣고, 아내의 도움으로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 삶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종길 목사님께 “일단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 다짐을 잘 지키고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일대일제자양육도 신청했다. 양육을 받으면서 내가 몰랐던 말씀과 은혜,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는 여정이었고, 잘은 못해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시간이었다. 교회의 도움으로 순예배에도 나

가고, 교제에 관한 생각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교회의 도움으로 조금씩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
아내가 순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참 많은 도움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준비하셨구나’를 느낀다. 아내에게 이끌려 교회를 늦게 다니게 되었지만,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곧 태어날 쌍둥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성도의 올바른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신실한 교회 일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창조탐험대 간증



/ 조민하 학생(서빙고온누리교회 꿈땅)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지구의 탄생이 진화론에 의한 것이든, 창조론에 의한 것이든 나에게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사실 관심조차 없었다. 지구는 그냥 내가 사는 곳이고, 지구의 창조는 단군 이야기처럼 신화로만 여겨졌다. 그런데 신화나 옛날 이야기로만 여기던 창조가 창조탐험을 다녀온 이후 다르게 느껴졌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창 1:1).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이 신화가 아닌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진화론이 진짜라면 성경은 1장부터 거짓말이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무수한 신 중 하나가 될 뿐이다. 창조탐험대에 참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관심조차 없었던 창조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배웠다.
창조탐험대에 참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심판사건이다.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대홍수가 일어났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줄었다. 대홍수로 인해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면 지층이 짧은 시간에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 해양 동물과 육지 동물의 화석이 같은 지층에서 나타났다. 화석으로 공룡이 존재했다는 것도 배웠는데, 9세기(800년) 즈음에도 공룡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창조탐험대에 참가하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은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 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 창조론을 배웠더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겨졌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를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겠다. 창조탐험대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장로칼럼

성경에서만 만났던 그 땅에서

허경 장로
(서초A공동체)

첫 순례지 ‘가이사라’와 헤롯왕이 습지에 세운 로마식 도시를 거쳐 엘리야가 바알제사장들과 겨룬 ‘갈멜산’,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의 ‘므깃도 요새’에 도착했다. 지금이 초막절 기간이라 입구 잔디밭에 초막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앉아 쉬고 있었다. 천혜의 요새 므깃도를 둘러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마을을 둘러보고,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튿날 예수님이 공생애 첫 기적을 행하신 마을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기념교회’를 거쳐, 이스라엘 최북단 ‘단’으로 향했다. 잠시 숲속을 걸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했다. 갈릴리 호수 주변 ‘팔복기념교회’, ‘오병이어 기적 기념교회’, ‘베드로 수위권교회’와 예수님 공생애의 베이스캠프였던 ‘가버나움 마을터’도 돌아보고, 갈릴리 호수에서 발을 담그기도 했다.

3일 차에는 ‘여리고’ 옛 성터를 지나 삭개오가 올랐다는 ‘뽕나무’를 보고, 쿰란으로 향했다. ‘쿰란’은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된 곳이다. ‘사해’에서 진흙 마사지와 실제로 몸이 물에 뜨는지를 경험했다. ‘엔게디’를 지나 숙소로 향하면서 ‘마사다 요새’를 지났는데, 유대인들은 역사를 되새기며 마사다 요새에서 임관식을 한다. 석양에 물든 마사다 요새를 바라보며 다시금 내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 있다는 소돔산에서 ‘롯의 아내 소금기둥’과 ‘소금광산’을 보고 3일 차 일정을 마쳤다.

4일 차는 유대광야를 거쳐 브엘세바, 베들레

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었다. 이동 중에 ‘유대광야’에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늘이 있는 큰 나무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싸리’와 같이 그늘은 없고 그림자만 있는 작은 덩굴과 같은 나무라 사뭇 충격이었다. 잠시나마 왜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광야에서 키워냈는지를 묵상했다. 황량한 광야를 통과하는데 풍경이 푸르게 바뀌면서 나무가 있는 마을이 등장하는데 ‘브엘세바’다. 에셀나무와 싯딤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며 성경 속에서 이삭이 판 우물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직접 볼 수 있었다. 베들레헴 ‘목자들 기념교회’를 들렀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겻세마네 동산’에 오르니 예루살렘 구시가지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순례 마지막 날은 여리고 숙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라이온게이트에서 출발했다. 베데스다 연못 옆 기념교회에서는 일행 전원이 앞으로 나가 찬양했는데, 그 울림이 얼마나 좋은지 참으로 은혜로웠다.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골고다 언덕 기념교회’가 있는 곳까지 일행들도 짧은 구간이나마 십자가를 나눠서 지고 언덕을 오르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였다. ‘통곡의 벽’에서는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축하하는 유대인들 틈 사이에 끼여 통곡의 벽에 손을 대고 잠시 기도할 수 있었다. 덩게이트로 나와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다 같이 찬양하며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성지순례를 마쳤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모르고 지나간 많은 의미를 새롭게 깨우치는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전과 이후가 구분될 것으로 생각한다.

권사칼럼

하나님의 은혜

김현수 권사
(분당B공동체)

코로나19는 서서히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와서 육체만 손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반경을 좁히고,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했다. 영혼까지 옥죄어 왔다. 하나님과의 사랑 고백이요, 감사였던 뜨거웠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침 문안 인사 정도로 식여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가오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심겨진 곳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머뭇거리며 뒤로 숨거나 비켜서지 않고 제대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힘써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부부는 둘 다 안 믿는 가정의 신앙의 첫 열매(seed faith)들이다. 친정어머니는 가족의 복을 빌기 위해 매년 4월 초파일이면 절에 가서 우리 식구들 이름으로 등을 달고 오시곤 했다. 그런 친정어머니가 은혜받고 동네 친척, 이웃들에게 “하나님 믿고 천국 가지”고 권면하셨다. 매일 뺏뺏한 천 원짜리 새 돈을 준비해서 교회 갈 때 현금이라고 나눠주면서 전도하셨다. 친정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위독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담당의사가 위기라고 말했던 그날 밤을 지나 3년을 더 교회에 출석해서 은혜받고 간증하시며 사시다 하늘나라로 가셨다. 가장 전도가 어려울 거로 생각했던 시어머니도 “너희들이 나쁜 것을 권

하겠느냐”고 하시면서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가대 봉사까지 하셨다.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 안 속는다”고 하셨던 시아버지도 나중에 노인성가대를 섬기셨다.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미리 준비시키셨던 것 같다. 가족 구원이 나에게 가장 큰 숙제였기에 미국에 있을 때부터 기도 모임마다 부모 형제와 가족의 영혼 구원을 기도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해왔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귀국하고 깨달았다. 친정 부모님의 사택 아래채에 사셨던 전도사님이 계속 어머님에게 교회 갈 것을 권면하셨고, 시택은 먼저 교회에 나가신 시외조모님이 시어머님을 전도하고 계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일하고 계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용조 목사님이 ‘2천1만비전’을 선포하던 날 설교시간이었다. 1만 사역자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나는 속으로 직장 생활하는 자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목사님과 시선이 딱 마주쳤는데 “학교에 나가시는 분은 방학 때 나가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해 여름방학 때부터 성령에 붙잡힌 바되어 ‘단기선교사’로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를 들고 중국 심양을 시작으로 청도,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그리고 호주까지 선교를 나갔다. 국내 지방 여러 교회들에도 요청에 의하여 가게 되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어디서나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다. 나도 이제 저물어가는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고백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한다.

신앙에세이

박근범 목사
(김포공동체)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라는 예배학자는 “예배는 ‘모임(Gathering), 말씀(Word), 성찬(Table), 흠여짐(Dismiss)’이라는 4중 구조로 되어있다”고 말한다. 예배의 구조에 예배로 ‘모임’과 세상으로 ‘흠여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내가 요즘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에는 해치우듯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예배가 시작되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것임을 알게 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예배가 세 번의 타종으로부터 시작되고, 축도를 예배 종료의 순서로 여기곤 한다. 하지만 예배당을 향해 모이는 것도 예배의 의식(ritual)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음도 예배적 행위이기에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예배자이다. 또 삶의 현장은 예배와 단절된 공간이 아니다. 예배의 연장선 가운데 있는 지점이다. 이처럼 모임과 흠여짐은 예배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신앙인인 척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일상을 잘 살아내어 거둔 거룩한 열매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이름을 높여야 한다. 순간순간 그러지 못했던 삶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자비를 구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러야 할 삶의 열매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지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서도 매우 중요한 신앙고백 현상이어야 한다. 부활의 날인 주일은 주께서 배푸신 새로운 생명력과 은혜를 누리는 날이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갈 때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다시 주어진 일상이라는 기회를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신앙인들의 모임과 흠여짐의 선순환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일상을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고, 그 삶의 열매로 다시 감사로 모이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반복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질 뿐 아니라 공동체도 더욱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온전한 신앙, 깊은 영성이 단 한 번의 예배로 달성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내면과 인격, 성품이 성령 안에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

에 예배자로서 일상에서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한 주의 일정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주님이 복되게 여기시지만, 구별된 시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야말로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일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의 매 시간, 매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면 참 좋겠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룩의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다. 우리의 모든 인격, 형성되는 모든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정말 좋겠다.

이제 우리는 단 한 두 시간의 예배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일상의 매 순간 기도하며 애쓰는 실천의 노력을 기울이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모이고 또 흠여지는 의미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예정 신앙

‘모든 것은 자기하기에 달려있다’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고, 인간의 선택에 따른 변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는 영역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사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얻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 신앙에 대한 오해는 인간의 판단이나 선택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정 신앙은 인간의 판단이나 선택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판단과 선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생의 운명이 나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 있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큼 불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고 믿는 것이 예정 신앙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판단 이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며,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정 신앙입니다. 예정 신앙이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따라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에 따라 좌우되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공롭게 여길 자를 공롭게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

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공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14~16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불의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천국에 가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배교적 뿌리에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해도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에 불평할 수 없다.”

모두가 천국에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일부만 천국에 데려가셨다면 불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구원의 과정과 선택을 통해서 계속 공해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정 신앙은 선택하신 이들에게 공해하심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공롭게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17~18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구절은 난해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까? 이것도 앞에 ‘미워한다’는 말과 같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이 완악함을 의미합니다. 교양과 교육, 문화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악함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제어하심으로 더 심한 악과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제어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하게 될까요? 많은 무신론자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말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며, 악한 사람이 횡행합니까?”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통

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완악함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에게 그 완악함을 제어하는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그 장막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 완악함이 표출되게 해서 스스로 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내어버려두심의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할 때는 그 사람 안에 악을 만들어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완악함이 스스로 길을 가도록 보호하시는 은혜의 장막을 잠시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악의 열매를 스스로 먹고 자멸합니다. 예정 신앙이란 하나님이 완악한 자를 통해서도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악한 인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택함을 통해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을 택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선교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택해서 공해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때로는 스스로 완악한 길을 걸코 버리지 않는 이들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악의 무서움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로 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이 세상 일도 모르고, 어떤 운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공롭게 여길 자를 공롭게 여기시고, 완악함에 내버려둘 자를 내버려두심으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정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신앙은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 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선교적 열망을 갖게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고 통스러워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우리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예정 신앙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예정 신앙은 우리의 모든 자유권과 선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밖으로 휩쓸려 가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순회 칼럼’

2016년 가을 어느 날, 한국에 있는 강어트경 목사에게 반가운 문자메시지가 왔다. 그날 그의 문체는 평소와 다르게 많이 들떠있었고, 조금은 흥분한 듯 느껴졌다. 우리가 함께 전도해서 세례를 베풀고, 몽골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양육하던 B형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날 그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보았다”고 했다.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강의를 들던 중 A 교수님께서 자신이 20년 가까이 기도 중보해 온 몽골의 두 청년 이야기를 주셨다고 한다. 그들의 이름과 사진을 봤는데 그 중 한 명이 우리 교회의 B형제라는 것이었다.

1998년 일본 NHK 방송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 지하 맨홀에 살고 있던 아이(당시 10세 전후) 세 명의 삶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했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가족을 잃어버린 그 세 아이는 겨울이면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를 피해 도시 중앙난방용 온수관이 지

나는 맨홀 틈새에 살면서 구걸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사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내가 섬겼던 몽골 울란바토르 연세친선병원 주차장과 입구 옆에도 맨홀이 여러 군데 있어서 병원 공동체가 그곳에서 지내는 성인들과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돌보곤 했었다. 그 방송에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접한 A 교수님은 너무 불쌍하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8년 NHK는 그 아이들의 10년 후 삶을 추적해서 보여주는 두 번째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했다. A 교수님은 마음의 부담을 안고 그 방송을 보았다고 한다. 그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본인은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곳이지만, 거리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2008년 당시 막 20대로 접어들던 세 아이 중 하나는 주민 등록조차 없었고, 둘은 알코올 중독과 폭

행 등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일을 반복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우리가 B형제를 만난 것도 거리였다. 당시 우리 사역자들은 거리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그들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B형제를 거기서 만났다. 그는 비록 교회의 일반 공동체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했지만, 회복그룹 안에서 성령께서 특별히 만지시는 몇 명의 형제 중 하나였다. 그가 우리를 만나고 1년쯤 지난 2014년 여름, 울란바토르시를 지나는 톨강의 상류에서 감격적으로 침례(세례)를 받았고, 1년이 지나 그의 여동생까지 세례를 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2022년 ‘몽골 키즈 홈(Mongol Kid’s Home)’이라는 단체로 발전했다. 강어트경 목사와 울란바토르 주님의 영광교회는 A 교수님을 통해서 몽골 거리의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동역자들을 만났다.

2022년 현재 우리는 2,700여 명의 후원자들과 함께 B형제와 같이 가족에게 버려지고, 가족을 잃어버린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구호와 교육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울란바토르시 변두리에 독립된 센터를 건축하고, 8명의 미혼모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30여 명의 불우한 환경의 미취학 및 저학년 아이들도 돌보고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교하신다. 선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앗이 비록 작아 보여도,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어서 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은혜를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계획하시고, 영원히 운행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 덕분에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남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목 마른 영혼을 섬길 수 있다.

/ 한영훈 선교사(몽골)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증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이강현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로그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페리랑가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땅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울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ISB서울빌딩 2층(용산구 한강대로 363-2)
문의: 010-8964-5275

CMN 서울역노숙인 진로팀 모임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참좋은친구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통일선교학교

일시: 10월 29일~11월 26일
(매주 토 오후 7시 30분~9시)
신청: 아이스쿨
회비: 2만 원
문의: 010-4337-5927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세미나 기획자, 안드로이드 개발자, 서점직원(분당) 각 1명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
지역: 서울 서빙고동, 본당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두란노해외선교회 간사 모집

모집: 정규직 1명
업무: 선교훈련 담당 및 기획동원 업무
장소: 양지Acts29비전빌리지 3층
근무: 채용 즉시(11월 중), 화~토요일
문의: 070-4464-8102

본부 123기 두란노 어머니학교 모집

일정: 11월 23일~12월 21일 매주 수 오전 10시~12시 40분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
회비: 12만 원
신청: 아이스쿨
문의: 02-2182-9114

*게시판 광고미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칼럼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료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케냐 마사이부족 엔게레수나 어린이 후원

1. 5-12세 읽을 수 있는 영어 책(학습지는 받지 않습니다)
2. 운동화(사이즈 190-230)
3. 아이들의 공책, 필기 도구
4. 집에안쓰고 가지고있는수건(욕실타월)
보내실 곳: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임정윤 간사(570-7469)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성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항로 2로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승 목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를랜드 유현록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욱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타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3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 -CI NAKA -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캠퍼스 담임목사

●부목사(전임)

김종길 이상준 윤길중 김소리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서경남
이준호 박철웅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감지영 고벽석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걸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용아 김중호 김철희
김태용 김태완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도육환
럼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근번
박시형 박성은 박성연 박성전
박천중 박형준 배현삼 배인규
변대섭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이서진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의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영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훈수
조호영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승준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하성희 하정훈 한은선
한화수 한중희 홍기안 허원희
황중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한국 신현미 송동주
오현교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주하늘 진진미 카와무라 요시키

●목사(준전임)
구해미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재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구해미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병철 김세환
김은하 김효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누이엔느 한해준 마주박
박시마 박영규 백승현 비 걸
서영철 성부애는 사가르
에릭마틴스틀즈 윌리엄 이성광
이세영 이진이 이진희 윤준석
윤치연 전 진 제인랑 체이미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하람 강현구 권예람 김가희
김동규 김반석A 김반석B 김세미
김수영 김영진 김영진 김승관
김주영 김경무 김경호 김지선A
김지선B 김진성 김진희 김태광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해
민근홍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새미
박예슬 박영준 박지수 배명지
박태훈 방성주 방연이 배명지
백요한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변대섭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이서진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의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영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훈수
조호영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승준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하성희 하정훈 한은선
한화수 한중희 홍기안 허원희
황중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한국 신현미 송동주
오현교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주하늘 진진미 카와무라 요시키

●목사(준전임)

구해미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재 방선기 이기복

김상설

김성국 김승영 김승영 김승영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원규 김의득 김이곤 김장영
김종진 김용성 김중승 김자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하중
김현철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근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근
박영태 박성숙 박석봉 박성근
박영태 박영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배준우 백남인
백승용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성창성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한식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진 안태환
양유식 양주원 양재수 엄대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원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영식 윤영오 윤정우
이강범 이간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철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부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웅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정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안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승봉 정영열 정영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창진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규 천덕진 최두린
최 명 최진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홍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덕종 한양희
한종대 한정식 함곡식 함선호
허형석 홍종일 홍기범 홍대표
홍범식 홍중철 황영욱 황용오
황재규

●사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철호
김태욱 고대아 고영주 광범철
곽진성 곽희준 권순형 권오습

김석인

김성국 김승영 김승영 김승영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원규 김의득 김이곤 김장영
김종진 김용성 김중승 김자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하중
김현철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근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근
박영태 박성숙 박석봉 박성근
박영태 박영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배준우 백남인
백승용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성창성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한식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진 안태환
양유식 양주원 양재수 엄대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원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영식 윤영오 윤정우
이강범 이간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철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부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웅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정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안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승봉 정영열 정영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창진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규 천덕진 최두린
최 명 최진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홍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덕종 한양희
한종대 한정식 함곡식 함선호
허형석 홍종일 홍기범 홍대표
홍범식 홍중철 황영욱 황용오
황재규

김선래

김성국 김승영 김승영 김승영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원규 김의득 김이곤 김장영
김종진 김용성 김중승 김자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하중
김현철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근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근
박영태 박성숙 박석봉 박성근
박영태 박영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배준우 백남인
백승용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성창성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한식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진 안태환
양유식 양주원 양재수 엄대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원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영식 윤영오 윤정우
이강범 이간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철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부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웅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정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안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승봉 정영열 정영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창진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규 천덕진 최두린
최 명 최진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홍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덕종 한양희
한종대 한정식 함곡식 함선호
허형석 홍종일 홍기범 홍대표
홍범식 홍중철 황영욱 황용오
황재규

김선택

김성국 김승영 김승영 김승영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원규 김의득 김이곤 김장영
김종진 김용성 김중승 김자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하중
김현철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근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근
박영태 박성숙 박석봉 박성근
박영태 박영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배준우 백남인
백승용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성창성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한식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진 안태환
양유식 양주원 양재수 엄대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원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영식 윤영오 윤정우
이강범 이간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철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부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웅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정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안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승봉 정영열 정영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창진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규 천덕진 최두린
최 명 최진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홍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덕종 한양희
한종대 한정식 함곡식 함선호
허형석 홍종일 홍기범 홍대표
홍범식 홍중철 황영욱 황용오
황재규

권오환

김성국 김승영 김승영 김승영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원규 김의득 김이곤 김장영
김종진 김용성 김중승 김자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하중
김현철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근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근
박영태 박성숙 박석봉 박성근
박영태 박영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배준우 백남인
백승용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성창성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한식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진 안태환
양유식 양주원 양재수 엄대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원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영식 윤영오 윤정우
이강범 이간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철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부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웅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정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안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승봉 정영열 정영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창진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규 천덕진 최두린
최 명 최진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홍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덕종 한양희
한종대 한정식 함곡식 함선호
허형석 홍종일 홍기범 홍대표
홍범식 홍중철 황영욱 황용오
황재규

권용환

김성국 김승영 김승영 김승영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원규 김의득 김이곤 김장영
김종진 김용성 김중승 김자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하중
김현철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근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근
박영태 박성숙 박석봉 박성근
박영태 박영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배준우 백남인
백승용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성창성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한식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진 안태환
양유식 양주원 양재수 엄대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원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영식 윤영오 윤정우
이강범 이간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철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부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웅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정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안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승봉 정영열 정영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창진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규 천덕진 최두린
최 명 최진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홍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덕종 한양희
한종대 한정식 함곡식 함선호
허형석 홍종일 홍기범 홍대표
홍범식 홍중철 황영욱 황용오
황재규

금세종

김성국 김승영 김승영 김승영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원규 김의득 김이곤 김장영
김종진 김용성 김중승 김자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하중
김현철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근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근
박영태 박성숙 박석봉 박성근
박영태 박영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배준우 백남인
백승용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성창성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한식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진 안태환
양유식 양주원 양재수 엄대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원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영식 윤영오 윤정우
이강범 이간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철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부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웅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정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안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승봉 정영열 정영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창진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규 천덕진 최두린
최 명 최진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홍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덕종 한양희
한종대 한정식 함곡식 함선호
허형석 홍종일 홍기범 홍대표
홍범식 홍중철 황영욱 황용오
황재규

김경돈

김성국 김승영 김승영 김승영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원규 김의득 김이곤 김장영
김종진 김용성 김중승 김자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하중
김현철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근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근
박영태 박성숙 박석봉 박성근
박영태 박영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배준우 백남인
백승용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성창성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한식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진 안태환
양유식 양주원 양재수 엄대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원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유영식 윤영오 윤정우
이강범 이간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철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부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웅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정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안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승봉 정영열 정영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창진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규 천덕진 최두린
최 명 최진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홍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덕종 한양희
한종대 한정식 함곡식 함선호
허형석 홍종일 홍기범 홍대표
홍범식 홍중철 황영욱 황용오
황재규

임 훈

김성국 김승영 김승영 김승영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원규 김의득 김이곤 김장영
김종진 김용성 김중승 김자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하중
김현철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근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근
박영태 박성숙 박석봉 박성근
박영태 박영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배준우 백남인
백승용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성창성 순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한식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진 안태환
양유식 양주



정기후원의 달 특집 다큐

[더 멀리 더 가까이]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가는 CGNTV 해외지사 이야기]



*“삶의 탈출구를 찾고 싶어
CGNTV에 연락했어요.”*

쿤난 | 태국CGNTV 통해서 예수님 영접



*“저에게 CGNTV는
세상을 보는 창과 같습니다.”*

샘 목사 | 인도네시아 사부섬에서 CGNTV 시청 중



방송일	11월 6일 주일
본방송	오전 10시 30분
재방송	오후 3시 20분
내레이션	배우 한혜진